

이따금 들려오는 좋은 소식  
AND NOW, FOR SOME VERY GOOD NEWS

By Jim Mathis

당신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좋은 소식을 들을 준비는 항상 되어있다. 특히 지금처럼 보고 듣는 소식의 대부분에 마음이 힘들고 당황스러우며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운하가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바닥까지 보인다고 그들은 얘기했다. 운전의 감소로 대도시 공기 질이 극적으로 좋아졌고, 그 결과 온실가스를 감소시켜 기후 변화를 늦추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새들이 평소보다 더 크기 노래한다는 증거도 있다.

물론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업률은 우리가 일평생 경험한 수치보다 더 높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일 뿐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생겨날 것이라는 확신을 듣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과 반응과 행동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만든다. 몸은 먹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인생은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빌립보서 4 장 8 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이유다.

뻘한 질문이지만, 무엇이 참되고 옳고 정결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뉴스 보도는 정확성을 위한 의심과 검증에 기반했다. 방송사는 자신들이 내보낸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자 철저히

I don't know about you, but I am always ready for good news, especially in a time like this, when every news report we see or hear is challenging, disconcerting, and even terrifying.

One bit of good news is that, according to reports, the canals in Venice, Italy have been clear for the first time in hundreds of years. They say it is possible to actually see to the bottom. The air quality in major cities has become dramatically cleaner due to diminished driving, and the reduction in greenhouse gases that has resulted could be a big step in slowing conditions that many science experts attribute to climate change. There is even evidence that birds are singing louder than normal.

Of course, the COVID-19 virus continues to rage in many parts of the world, and unemployment figures have been higher than ever experienced in our lifetimes. It is encouraging to hear assurances that that these situations are temporary, that we can create a "new normal" for our lives as the time passes.

All of this causes us to realize again that what we think about – what occupies our minds – largely determines who we are, how we react, and what actions we take. In other words, we are what we think. Our bodies are greatly affected by what we eat – but our lives are influenced by what we think. This is why the Bible, in Philippians 4:8, tells us to think about things that are true, noble, right, pure, lovely, admirable, and especially anything that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The obvious question is, how do we know what is true, right, pure, and all the rest? Not that many years ago, most of the news came from sources that challenged and competed with each for accuracy. News agencies went to extreme lengths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they presented. Even then there were

노력했다. 물론 당시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대개 그것들은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근거 없는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최악으로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 소셜미디어 정보의 70%는 거짓인 것으로 판명 났다. 나머지 30%의 진실에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먹었던 맛있는 점심 메뉴 등이 포함된다고 봤을 때, 이는 더욱 놀라운 수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력과 의식을 갖춰야 할 이유인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 싶거나, 일반적 상식과 다르거나, 대의적인 무언가로 구매를 촉구하며 홍보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경건하거나 사랑스럽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은 타인을 해하지 않는다. 훌륭하거나 덕이 있는 것은 부정적이지도 악의적이지도 않다.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된 내용에 의해 작동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 내용을 '프로그래밍' 하는가에 달려있다.

잠언 12 장 18 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 12:18)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 15:4)

이처럼 말하고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중 지구상에 더 오래 머물렀던 사람일수록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생존과 더불어 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mistakes, but they usually came from unreliable sources.

Today, many of us get information from sources with no accountability, or worse, have a particularly devious agenda to promote. It has been observed that 70 percent of the information on social media is false. This is even more alarming when we consider that the other 30 percent that is true includes how much we love our mom, or the good lunch we had. This is where our need for discretion and awareness come in. If something seems outlandish, differing from general understanding, or has an obvious agenda of promoting a cause or wanting us to buy something, we should be suspicious. Things that are noble or lovely or admirable do not tear down other people. Things that are excellent or worthy of praise are neither negative nor vicious.

Computers function according to what is programmed into them. In a similar way, our thinking depends on how we "program" them – the content we allow to go into them. As Proverbs 12:18 says, *"Reckless words pierce like a sword, but the tongue of the wise brings healing."* Another passage says,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is a tree of life, but a deceitful tongue crushes the spirit"* (Proverbs 15:4). What we say – and what we hear – has a profound impact on our lives.

Those of us who have been on this planet longer than most have a longer perspective. Because of this, we can trust that things will get better. Remember to dwell on the true, noble, right, pure, lovely, admirable, excellent and praiseworthy. It is the only way to survive and come out stronger than before.

##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지난 몇 달 동안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나쁜 소식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해왔습니까? 그 소식에 의해 당신의 기분과 태도가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How have you been handling the seemingly constant onslaught of bad news over the past months? Have you found your moods and attitudes affected by what you have heard?

2. 이러한 부정적 공격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차단하겠습니까? 보다 긍정적인 정보의 출처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식'이 그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What do you do to keep from becoming overwhelmed by this barrage of negativity? Do you just turn it off; do you turn to other, more positive sources of information, or do you simply let the "news" dominate your thoughts? Explain your answer.

3.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do you think of the biblical admonition,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 think about such things"?

4.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케 하며 심지어 우울하게 만드는 정보와 아이디어가 아닌, 긍정적이고 용기를 주며 활력을 북돋는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How can we go about doing that – focusing on things that are positive, uplifting and energizing, rather than information and ideas that can discourage, dishearten, even depress us?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about this subject,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여호수아 1:8; 로마서 12:1-2; 갈라디아서 5:22-23; 빌립보서 4:4-7;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수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 (롬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갈 5:22-23)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빌 4:4-7)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전 5:16-18)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북미주 KCBMC [www.kcbmc.net](http://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http://www.cbmc.or.kr)